

## 새로운 노트

2025.05.15 목 오후 6:41 · 79분 49초

이태수

참석자 1 00:00

들을 전부 읽어드려서

참석자 2 00:01

그 내용에 해당하는 질의응답을 하지 찍으니 필요한 이 그래서 꽤나 많고 한가지 생각이 사람마다

참석자 1 00:09

이건 그냥 회의한 내용을 적은 거라 살짝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많은 개발 챗봇에 저희가 만든 서비스에 직접 계정을 로그인하면 연 연동이 된다면 그 연동된 그 계정에 레퍼제토리가 그 공용 퍼블릭으로 오픈된 레퍼제토리의 URL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 레퍼제트 내용을 챗봇이 받아들여서 그 질리는 연하 게시하는 게 목표예요.

참석자 3 00:39

팀장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참석자 4 00:40

아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00:43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하면은 너 지금 이 파일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코드에서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났고 이 함수는 어느 파일에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파일과 상호작용하고 있어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챗봇에서 대답을 해 주는

참석자 4 01:02

그런데 지금 아이디어는 전 좋은 것 같은데 이 코드 부분의 오류에 발생하는 부분을 웰킵 톱이랑 꼭 연동을 해야 돼요.

톱이랑 연동하는 그냥 그 기업에 있는 예를 들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클론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류가 나면 그것만 해결하는 그런 시만 있으면 되잖아 왜 전체 킷을 다 모아가지고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참석자 1 01:31

사실 방금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하면은 사실 그 부터비랑 연동을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건 오류 해결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문으로 예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레퍼지토리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었는데 그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거 찾아줘 하면은 그 살짝 화면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참석자 5 02:12

이거는 따로 만든 초안이긴 한데 네 두 번째 안이긴 한데 이것도 비슷하게 자기 비터블 계정으로

참석자 3 02:20

뭐야 저기 파이

참석자 4 02:24

갑자기 근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원지 이해는 했는데 약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일을 할 때 느끼면 제가 좀 더 고민하는 단계가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 이 기능이 있었더라는 질문을 하는 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거가 다 도큐멘테이션화가 돼 있거든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내에서는 그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기타 프로젝트 같은 거나 이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좀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 주제가 좋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제가 모든 회사들이 다 고민하는 주제예요.

어디 회사들을 가도 이거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회사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어느 회사도 지금 해결을 한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는 있어요.

참석자 4 03:40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아직 많은 단계인데 어떤 것들을 가장 원 하나면 첫 번째로는 다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들어와 네. 온보딩이 필요해 그러면 이 온보딩을 하려면 어떤 이런 사람 멘토를 한 명 더 드려야 돼요.

이 사람 가지고 질문 답변할 수 있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교육을 좀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문서 봐 문서 찾고 있는데 문서가 잘 검색이 안 돼 그리고 옛날에 10년 전 문서를 뒤졌는데 거기에 제대로 글자도 제대로 안 적어놓은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예요. 그 큰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도큐멘테이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참석자 4 04:25

그래서 이 도큐멘테이션을 잘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질문을 하면 프로덕트에 대해서 수량도 나오고 이 전체가 하나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리파주 툴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고민했던 코드가 있냐 물어보면 도큐멘테이션을 드셔가지고 그런 걸 고민했던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석자 5 04:51

그래서 네 메모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떤 레퍼 지터레이에서 유저 정보를 얻어내는 함수를 썼었는데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물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레플지처리에서 무슨 함수가 이 함수가 세 번 사용됐고 사용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주는 식으로 인풋 필드랑 아웃풋 같은 거 다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참석자 4 05:25

네 이게 이거는 맞는데 아마 거의 문서화가 돼 있는 걸 참고를 하고 그 문서 안에서 바탕으로 저게 나오는 게 맞을 스토리는 맞을 것 같아 지금 이거 깃 터블

참석자 3 05:37

검색을 할 거죠. 이

참석자 4 05:39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보면 똑같은 코드인데 1 2 3으로 정의된 것도 엄청 많고 중복되는 데이터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큐멘테이션이랑 조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그래서 도큐멘테이션 작업을 다 해놓는데 그걸 검색을 하고 저는 포탑을 보거든요.

베이스로 왜냐하면 버전닝도 다 다르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 모든 버저닝을 다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하면 그런 전체 회사 시스템에 있는 도큐멘테이션 고민 단계에서 저까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혹시나 이 부분을 자꾸 진행을 하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참석자 5 06:22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유저가 저희 서비스에 로그인을 했을 때 해당 유저에 대한 해당 유저의 레포지터리 데이터들을 LLM이 어느 정도 도큐멘테이션 화해 주고 코드들 임베딩이랑 파일 구조 같은 거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쓰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참석자 4 06:46

이게 근데 이거 목표가 사내잖아요. 네 회사는 퍼블릭 자기 개인의 퍼블릭 리퍼시트를 쓰지 않아요.

공용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퍼블릭은 그냥 그냥 자기 개인 장반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참석자 4 07:10

아니면 뭐 다른 시나리오로 이걸 좀 엮어도 상관없어

참석자 3 07:13

정말 이 개념을 몰라 오늘 처음 알아보고

참석자 1 07:22

근무하시면서 피트업도 사용해 보셨을 거고 다큐멘터도 있을 테니까 질문드리

는데 만약에 회사에 처음 들어온 분이 만약에 이런 코드 같은 개발을 할 때 선임 사수분이라고 하죠.

사수분이 도큐먼트로 설명을 해 주나 아니면 기타

참석자 4 07:45

두 개 다 알죠. 왜냐하면 기타 코드에 대해서 주석도 달아놨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 히스토리들을 찾아보려면 거의 도큐멘타리를 많이 보죠.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냐 히스토리를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번 전주에 이런 자동화를 하라고 이렇게 주간회의에서 미팅을 하고 미팅 보고서를 보고 그래서 그러면 그 커밋의 번호가 주간 회의에 이렇게 담아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한 줄 적고 샵 1182 이런 식으로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결돼 해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참석자 1 08:20

그럼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참석자 4 08:22

도큐멘테이션이 다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위키를 다 관리하는 거죠.

사내 위키를 이거는 막 약간 그런 느낌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사내에 있는 좋은 이제 자기 개인적인 퍼블릭한 소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코드들을 분석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거든 창이 있는 네 지금 다 개인적인 퍼블릭

참석자 5 08:53

리프트 같은 경우 여기에 하나 빼먹었는데 따로 디터브 URL을 넣을 수 있는 이 필드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퍼블릭 디터브 래퍼 지터리를 가져와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4 09:08

그러니까 퍼블릭을 들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퍼블릭들을 이제 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내가 아니고 사내로 가려면 공용 공간들로 다 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서치 모델링이라면 서치 모델링 데이터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서 도큐멘테이션도 있고 브레이크를 가려면 도큐멘테이션과 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I가 처음에 도큐멘테이션 검색이 나온 결과들이 나와요.

그럼 결과가 해서 이거 누르면 이런 코드가 이 오른쪽에 다시 하나 창이 다 떠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되면 사내

참석자 6 09:43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참석자 1 09:48

일단 퍼블릭 퍼블릭 쪽으로

참석자 4 09:50

네 만약에 이걸로 하신다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대 퍼블릭을 볼 기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퍼블릭을 참고할 때는 어떤 분이 개인 프로젝트 해 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그런 코드들을 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네 이거 제가 잠깐 구현해 봐 가지고 제가 기술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것들을 올려도

참석자 1 10:26

이제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참석자 4 10:30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참석자 4 10:40

사내 퍼블릭 깃 업 이런 내용들 이런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거 보려면 그 사람 깃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참석자 3 10:51

예 그 그럴 생각으로

참석자 4 10:55

그러면 너무 에이전트 같지 않지 않나 사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게 깃이 등록돼 있으면 그걸 다 자동으로 들고 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자동으로 들고 올 때 들어가는 왜 굳이 그 사람의 주소까지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약간 이제 검색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깃을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거에 그런 내가 원하는 코드 소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어떤 문서를 하나 주고 그 문서 분석해줘 약간

참석자 1 11:28

이런 느낌이 짧게 보면

참석자 4 11:31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



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11:37

네네 지금 저희 방향성

참석자 5 11:39

근데 나는

참석자 4 11:40

네 일단 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나중에 아까 자료 자료 네 자료 일단 벌써 뭐 거의 다 하셨네요.

참석자 1 11:59

초기 화면이 이랬는데 지금 살짝 수정을 해 주셨고요.

네 사실 원래 초기 화면이 이랬고 기타 계정을 거기서 연동을 하면은 그 해당 계정에 대한 레퍼지트리가 뜨고 레퍼지터를 선택을 하면은 그 레퍼제트에 대한 질의 응답이 가능한 챗봇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참석자 5 12:15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고 전체 레코스터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참석자 4 12:20

그게 제일 베스트겠죠. 선택을 하는 것 자체부터 일단 UI적으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슈가 있다는 건 개발단의 이슈가 아니고 네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용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인 키즈에 대해서 검색을 할 이유

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본인 계정인데 아니요. 남의 계정이 남의 계정이 그걸 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깃을 들고 왔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공유를 해줬을 때 근데 그걸 다큐멘테이션 적어놓거나 했을 거잖아요.

아니면 슬랙에 올려놓거나 그러면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벌써 그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 뭐가 있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보고 싶을 때는 뭔가 이걸로 그냥 다 분석해 줘야 할

참석자 1 13:06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문서 분석이든

참석자 4 13:09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의 접근보다 제목을 그러면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가면 차라리 이건 답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사내 문서 지식 정보들을 검색을 하는 거니까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일단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다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참석자 1 13:30

이거 소소하긴 한데 옆에 폼이 되든지 잘 되는 선택 기준이고 데이터셋을 나누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학원 측에서 그래서 웹 사이트 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에 에르램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사이트 데이터 화면 화면에 보이는 유저 데이터라든지 레프스토리 목록 이런 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머신러닝 딥러닝은 저희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머신닝 딥러닝이라는 얘기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고 학습한다.

여기서 학습을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래퍼 지토리들은 이 레퍼지 토리가 프론트 레퍼스토리냐 백엔드 레퍼스토리냐 풀스텝 레퍼스토리에 따라서 파일 코드 파일 형식이라든지 코드 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유형별로. 그래서 그 유형을 나눠서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 LLM이 챗봇을 할 때 이 레퍼지 스토리가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답변하는 프로포즈가 달라 지는 식으로 구성을 말씀하신 다고요.

참석자 4 14:34

약간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문서 학습은 이해가 되는데 프론트인지 백엔드인지 그게 그걸 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참석자 5 14:43

뭐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놓어야

참석자 4 14:49

그건 들었어요. 근데

참석자 5 14:54

뭐냐 레퍼스토리 유형 분류라도 하려고 일단 저렇게 놓긴 했는데

참석자 4 14:59

회사에서 뭔가 프론트 이건 프론트 코드예요 하면서 뭔가 이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참석자 1 15:07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주제를 정할 때 방금 말씀해 드릴 줄 알았는데 그 도큐멘토라는 주제를 생각 안 하고 만들었던 거 같아요.

참석자 4 15:15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먼저 다 하세요. 다 보고 말할게요.

참석자 1 15:22

그리고 이 유형 레퍼지토리 유형을 머신러닝이 운영이 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엘리게이터 레퍼시터에 아는 코드들이랑 이 코드가 되겠죠.

타겟은 기업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개발자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한데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대 효과는 네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생각을 안 하고 했다 보니까 기업으로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디터에 조회를 하고 올 수 있는 그 로직 같은 것도 챗봇이 응답을 해주면 편리해지겠다. 개발 과정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초안은 여기까지 짜고 네 이렇게 갔던 거고 그리고 요구사항 동의서는 이거는

참석자 4 16:09

거의 다 하셨네. 벌써 돈을 받기가 힘들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화요일에 시작했어요. 다 만들어 그럼 금방 금방 제가 말하면 다 만들겠네.

참석자 1 16:18

주제가 처음에 딱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주제에 따라서 그냥 할 거

참석자 5 16:22

주제가 제가 처음 한마디 하자마자 정해져가지고

참석자 4 16:26

근데 좋아요. 너무 왜냐하면 그래서 한 번 인터레이션을 작업을 해봤잖아요. 호흡을 한 번씩 다 맞춰봤다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 과정이 돌아갈지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벗이라는 걸 엄청 많이 해요.

피벗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을 때 이 아이템으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오늘처럼 이게 별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받은 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이걸 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놔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국가 사업에 돈을 자꾸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새로운 작업을 자꾸 그때 도모를 해서 하는 거고 이 작업을 몇십 번이나 해가지고 성공한 데

참석자 2 17:07

기능들이 만들어져

참석자 4 17:09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기 근데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하게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는 그냥 기본 리그잖아요.

나이프한 네 리그

참석자 3 17:22

많이 할 때 쉬고 싶어요. 그러고 서 내려오려면

참석자 4 17:31

여기로 오셨구나. 제가 예 제가 제가 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 일어나셔도 돼요.

참석자 1 17:37

연결 자리 성적 좋았어.

참석자 4 17:39

잠시만요.

참석자 3 17:40

약간 그냥 그 배경이 있는 사람 말고 그런 문서화 작업에 있는 사람이나 디자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누구나 다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

참석자 4 17:55

이런 류의 HR에 대해서 회사들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유저들이 있어요. 아무 질문이나 날려요. 그럼 그 질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라우터가 그래서 이게 온보딩 퀘스천인지 프로덕트에 대한 캐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퀘스천인지를 분류를 해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분석해서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보딩 퀘스천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온보딩 에이전트로 봐요.

그럼 보딩 에이전트 안에서도 누구는 회사 뉴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누구는 HR 폴리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HR 폴리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레그 에이전트라는 결과가 나오고 컴펜 뉴스에 하면 웹 서치를 해가지고 웹 서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회사 제품인 거죠.

참석자 4 18:42

어떤 제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회사 제품에 대해서 신입사원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리에 대해서 일리치를 해 주는 거예요.

쿼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리를 이걸 가지고 몇 개를 더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질문해 봐 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검색을 여러 개를 해 여러 번 해요.

그럼 문서들이 많이 나오죠. 파편들이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게 쿼리가 많이 나오니까 쿼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커리 디 컴포지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커리가 많이 나오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어디서 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여라고 질문했어요 네 그럼 커리의 의도가 2개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질문하는 것보다 잘라서 한 번씩 질문하는 게 낫거든요.

이걸 두 컴포지션 한다고 말을 해요.

참석자 4 19:26

이것도 AI의 LLM의 기능 중에 하나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잘라서 여러 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파편적인 문서들이 엄청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근데 그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결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프로덕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프로덕트가 링크도 있는 어떤 SNS에 포스팅 할 건데 그 포맷으로 바꿔줘 하면 그것도 인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명령을 해준다든지 마지막으로는 재고 같은 걸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그래서 어디 어디에 실적 같은 거나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쿼리가 RDBMS를 참고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텍스트 에스쿨로 커리가 바뀌어요.

텍스트 에스쿨로 질문을 해서 거기서 텍스트 테이블을 들고 오고 그 테이블을 비주얼 라이징하고 리포트를 적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석자 4 20:20

예를 들면 아까 두 개는 말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커스텀 데고 그래픽 중 레벨 뉴 제너레이터나 넘버 러브 프로덕트 이런 거에

참석자 2 20:37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이

참석자 4 20:41

실제 사내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지금 이 분석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텍스트의 스케일도 이루어졌고 네 코드 변환들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참석자 2 20:53

그렇게 할 건데 어느 시간까지 우리 이거 안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이거 지금

참석자 5 20:59

유저 쿼리를 임베딩해가지고

참석자 4 21:02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려주는 거죠. 코드로 그림 코드를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코드를 또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툴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게 만들어줘 말씀하세요.



참석자 5 21:13

맨 처음 분기할 때 유저 커리를 임베딩 해가지고 딥러닝 시켜서

참석자 4 21:19

유형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LLM으로 라우터로 주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에이전트고 이 하나가 에이전트고 이 하나가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분기별로 작업을 이플스로 하지 않고 커리만 날리면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과를 내주는 이런 걸 에이전트 클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거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분류 중에 하나가 전체 공용 공간의 이제 깃이예요.

그리고 깃은 또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깃을 다 보고 싶지만 다 권한이 이 왜냐하면 내가 저 팀에 권한을 하려면 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또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바꿔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 1 22:09

그럼 일단은 그 분류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깃이랑 그리고 회사 사내에 있는 상

참석자 4 22:17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막상 여기 안 치워도 됩니다.

이제 막상 사내 이걸 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사내 문서들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서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목업 데이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회사 하나를 타겟을 하세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버린다든지 삼성이면 삼성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타겟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HR 정책 같은 경우는 챗gpt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장 몇백 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위키로 뭘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그걸 크롤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것에 만들지 말고 여러 개 파편화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편화돼 있는 HR 폴리스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벡터 DB를 인베딩을 해놨다가 하나의 기술 스택이 되는 거예요.

참석자 4 23:09

그걸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API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두 번째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SQL은 사실 우리가 거기 회사의 재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 케글이나 이런 데서 아무 RDMS 저런 데이터를 받아서 테이블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세요.

네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아까 채팅 화면에서 재즈 비디 쓰면 가끔 캔버스에 이렇게 짝 지그러서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도큐멘테이션에서 검색을 막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 기 코드예요.

이 것에 접속해 가지고 그 코드를 분석해 드릴까요?

누르면 이 오른쪽에 나와서 기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5 24:02

대화 영역 따로 코드 영역 따로 해가지고

참석자 4 24:05

네 평소 때는 대화 입력만 보여주는데 네 코드 질문만 들어오면 반으로 나뉘면

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예요.

네네네 코드 질문이 아니고 다른 나중에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것도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내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그러니까 사내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려고요.

롤을 일단 잡아보죠. 롤 신입사원 그다음에 HR 매니저 아니면 그 4순위 이런 식으로 롤을 잡아서 신입사원들은 온보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거고 HR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잖아. 그다음에 신입사원이 또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한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수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참석자 4 24:58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니고 사수도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보를 검색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사람의 롤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에이전트 AI를 만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1 25:15

그러면은 그 기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첫 번째로 나뉘다면 그 안에 부서들에서도 사용자가 신입이나 사수나 뭐 그런 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겠네요.

다

참석자 4 25:30

그래서 지금 아까 잘했잖아요. 예를 들면 코드 코드 주소 넣어가지고 넣으면 거기 있는 분석해 준다면 그걸 어디에 활용하냐 나한테만 허가가 돼 있는 우리

공룡 레파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위키를 뒤져도 나한테 허가돼 있는 공간에 위키만 뒤질 수 있거든요.

회사는 그러면 우리 팀에서 내가 뭘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 코드가 여기에 있  
대 그러면 이것을 누르면 그럼 그 코드를 분석해 줄까 이렇게 휴먼 인더 루프라  
는 피드백이 뜨는 거예요.

ys라고 누르면 그게 반이 나뉘면서 그 코드를 분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엄청 편하죠. 회사 사람들

참석자 7 26:04

사주자부터 설

참석자 4 26:06

그렇죠 물론 우리 시나리오에는 그거고 궁극적으로는 그거지만 초반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만들면 좋죠.

그래서 분기를 여러 개를 만들고 여러 에이전트를 내가 생각할 수 있게 에이전  
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최근에 이  
제 아까 말했듯이 휴먼 인더 록트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자꾸 생각을 하다가 이  
게 답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스 올 노를 중간에 버튼을 두  
기도 하거든요.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 너 보고서 자료 제출해 줄까 네가 말한 게 이거  
맞아 이걸로 만들어 줄까 이런 식으로 넣으면 최근에 이제 휴먼 인더 루플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이거  
든요.

그런 것들도 좀 넣어주면 좋아 시나리오 약간 어떤 건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적어보죠. 한번 적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없어

참석자 6 27:15

갑자기 많이 어려워지네요.

참석자 8 27:20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내부 문서잖아요.

외부에 있는 링크를 받아서 넣는다는 게 기능적으로 들어가면 외부 문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 문서를 활용한 LLM인데

참석자 3 27:33

네 고

참석자 7 27:34

네네네. 잠깐만 어펜덱스랑

참석자 5 27:36

그래서 원래는 로그인을 하면은 네 맞습니다. 디커브 레포지터리들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내부 문서로 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참석자 1 27:48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 밖으로 넘어가니까 여기가 생기

참석자 4 27:55

혹시 이제 회의를 매번 할 거잖아요. 네 하면 저희들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웬만하면 하루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무사 그다음에 하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온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가 좋을까요? 혹시 저는 화요일이 화요일 화요일이요 그럼 무조건 화요일 날 한 번을 만나고 그리고 무조건 2시간 반 이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게 그때까지 제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냥 약간 자율성에 맡기면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2시간 반을 채울 수 있게 질문들을 만들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해야 돼요.

다른 거 취업적인 질문이라도 네 이런 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요.

참석자 4 29:00

그리고 만나는 거는 하루는 저는 강남 쪽에서 이제 만났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오늘 끝나고 여기서 강남 쪽 가면은 얼마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한 45분인가 50분 걸리는 시간 안 걸리네.

저도 딱 그 회사에서 오는 게 한 40에서 50분 걸리거든요.

참석자 5 29:27

대략 7시 정도에

참석자 4 29:28

7시나 7시 반쯤에 해가지고 그냥 배고프 수 있으니까 뭐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하는 게 그냥 스터디 카페에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참석자 5 29:39

강남에서 집까지 2시간 정도 걸려요. 어디 사세요?

송도요 송도

참석자 4 29:46

저기 다 다 다 붙어요. 저도 성남 쪽에 살거든요. 여기 서 서연 서 안산 의도 의도 누가 서연이 더 누가 제가 서연 서연이요.

네 서연보다 좀 더 남한산성 쪽에서는 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은 다 가까울 것 같고 오이도면 어디예요?

참석자 9 30:11

오이도 가져

참석자 5 30:12

4호선 끝이 4호선 끝이에요.

참석자 4 30:14

인천이랑 좀 그러면 강남 나쁘지 않네. 4당에서 그냥 4호선 타고 가면 되니까

참석자 8 30:19

4단까지가 1시간 4단까지가 1시간

참석자 4 30:22

아 그래요 4단까지 1시간 네 그럼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15분에서 어디 사세요?

참석자 8 30:31

저는 여기 바로 앞에서 사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참석자 6 30:35

어디서 저는 동네 쪽

참석자 4 30:36

동료 여기도 어디든 괜찮은데 두 분이 엄청 멀구나.

혹시 그럼 사장은 얼마나 남아요? 당이요? 우리 근처에 2호선도 있어가지고 당은 이 다 이어지긴 하면서 다당에서는 1시간 하면 그러면 약간 다 비슷하겠네요.

참석자 10 30:55

진짜 인천에 다 1시간 1시간 하거나 어딜 가도

참석자 8 30:59

인천이 진짜 얼굴

참석자 4 31:00

인천 약속 잡으면 무조건 어디든 1시간 반이라던데 인천에서 인천은 1시간 반이라던데 홍대에서 만날게 하면 1시간 반 강남에서 만날게 하면 1시간 반 그거 보고 이해 안 되는데 진짜인 것 같긴 하고 이렇게 독 전부 타이밍 맞으면 1시간 5분 걸려요.

1시간 5분이요. 그 정도 돼. 그럼 4당이 제일 낫겠네.

4장에서 그러면 4 그러면 여기 마치고 오는 거는 좀 더 빠르게 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독산에서 4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은 7시 반에 모이는 걸로



왜냐하면 7시까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보고 7시까지 올 수 있겠던데  
하면 만날지 말지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최소한 2시간 반을 하는 거니까 7시 반이면 10시가 되는 거고 아니  
면 9시 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사당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요.

제가 여기 여기 분들이랑 제가 하나 공유드릴게요.

참석자 2 32:08

이런 것들로 만들고 있다. 그런 예시를 들자면

참석자 4 32:13

이게 제가 예약을 해 주고 저한테 뭐 청구를 해 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고 엔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석자 2 32:24

많이 품었으니까

참석자 1 32:27

사실 예약 저희가 그거긴 했어. 사실 예약은 예약할 때 보통 저희가 할 생각은  
했었거든요.

참석자 4 32:35

그러면 제가 그러면 찾아서 편한 대로 해 주실래요?

네 일단 제가 하나는 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본 데는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멀  
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강남보다 조금 비싸긴 하던데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긴 한데 일단 보면  
비싸다 알리스 클라우드 같은 거

참석자 4 32:59

2시간 해서 5명 하면 1인당 3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남겨 놓을게요.  
네 만약에 이거보다 괜찮은 데 있으면 글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금토일 중에는 그냥 무조건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픽스는 언제로 해볼까요?

참석자 8 33:21

토요일 아침이 좋으세요? 저녁이 좋으세요

참석자 4 33:25

그래 그것도 중요하네. 저녁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이

참석자 8 33:29

저는 일요일은 빼고

참석자 4 33:31

일요일 빼고

참석자 8 33:32

일요일 저녁은 안 돼가지고

참석자 10 33:34

저녁 언제쯤

참석자 4 33:36

토요일 그러면 토요일 이번 주부터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주부터 토요일 토요일은 돼

참석자 2 33:47

영화 자체를

참석자 4 33:50

일단 시간을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뭐 매니저님들  
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받지 않으면 매번 바뀌고 그러면 시간이 거의 잘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참석자 3 34:02

오늘 인원을

참석자 8 34:05

괜찮습니다.

참석자 4 34:07

그러면 화요일 일단 7시 반으로 할게요.

참석자 3 34:11

원래는

참석자 4 34:12

그다음에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7시 30분 7시 30분에서 8시

참석자 3 34:17

있는 게 좋잖아요.

참석자 4 34:19

아까 8시로 할게요.

참석자 3 34:20

그래야지 저도 UX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오늘

참석자 4 34:26

이렇게 일단 남겨놓을게요.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미리 해 주셔야 되고 그날 어디라도 이제 바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 아까 말한 거 한번 적어보시죠.

참석자 5 34:39

토요일이 20시인가요? 18 20시

참석자 4 34:43

토요일. 그런데 아마 이번 이전 기수도 매번 오프라인 하자고 했는데 오프라인을 거의 못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특강을 가끔씩 와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제가 6월에도 아마 특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몇 시작했어

참석자 3 35:08

하고 키면은 모바일은 그냥 NGS만 뭔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이

참석자 4 35:13

6월 11일이네. 오늘 얼마나 남은 거지? 6월 11일

참석자 3 35:18

첫 달 4주 화면에 달 로그인이란 회원 가입이 있는 경우 21일이나 수요일 그렇  
죠.

저는

참석자 4 35:30

여기가 뭐였지 데이터 뭐죠? 플레이 데이터

참석자 3 35:33

어떻게 돼 있는지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야

참석자 4 35:36

4시 6시

참석자 4 35:44

네 일단은 한번 적어보죠.

참석자 3 35:49

그냥 어플

참석자 4 35:51

아까 그거 반식 반식 띄워가지고 적어놔던 거랑 이거랑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이 말씀하신 네 그거 그거 그거랑 그거 아까 그 메모장이랑 반식 반식 띄워가지고 예를 들어 똑같은 포맷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그냥 저 초안 페이지를 하나 복사를

참석자 3 36:09

내정보 게시판 중고 거래 일주일 그냥 홈 아래 아래 이런 메뉴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게시판 이렇게 쪽 다시 지게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참석자 5 36:22

윈도우 방향 추구하시면 윈도우 윈도우 하고 오른쪽

참석자 3 36:27

선택을 할까요? 핵심 기능인데 정리가 있으면 저거 이거 정리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핵심 기능들만

참석자 10 36:39

메모장도 필요

참석자 2 36:42

이 기능 변수를 하고요. 기능 기능별로

참석자 4 36:46

혹시 다섯 분은 좀 친하세요?

참석자 1 36:48

애처럼 애들

참석자 4 36:50

친해지면 되죠.

참석자 1 36:51

그리고 하나는 같은 팀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참석자 4 36:55

이번에 팀 처음 한 거예요? 아니요.

참석자 1 36:57

몇 번 해본 분도 계시고

참석자 4 36:59

처음 해본 거 처음 해 본 거 그렇게 됐구나. 근데 수업은 다 같이 쪽 들으셨나요?

네 수업은 다 6개월 동안 네 그럼 그래도 약간 애매한 밥 한 번 안 먹어 다 다친

노래 오케이 오케이 뭘 말인지 알았어 여기 뭐 어떤 한 팀은 와 쪽 같은 팀이 됐

던 분도 있다던데 네 그런 분 가끔씩

참석자 8 37:27

저희가 원하는 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짜주셔가지고

참석자 3 37:30

근데 거기 이제

참석자 4 37:32

어떻게

참석자 10 37:35

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는 메모장 띄워주는 좋은 거랑 메모장

참석자 4 37:38

아니 두 개 다 이거 띄워도 돼요. 그냥 하나는 그걸 싹 지워주세요.  
그 내용들 그냥 아까 그런 거 말고 대 제목 빼고는 다 지워주세요.  
저걸 한번 채워보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참석자 4 38:02

딤러닝 모델을 무조건 써야 한다. 딤러닝이랑 모닝

참석자 2 38:06

먼저 생각난 뒤는 흐름으로 중요

참석자 3 38:08

그런 거 쓰긴 써야 돼.

참석자 2 38:11

그리고 그거가 어시 에터지가 아니요. 정해져

참석자 4 38:16



오케이 쓰면 돼. 일단 아까 제가 시나리오 3개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 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측 모델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공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지 아니면 이 다음 이 다음 달에는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하는 모델들이 많거든 캐그에도 이런 모델 엄청 많아 그냥 그 데이터셋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그거 하면 돼 대신 그걸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툴로 하나의 툴을 만드는 거죠.

참석자 5 38:56

그걸 어디다가 가져 그 학습시키는 부분이 어디다가

참석자 4 39:02

그러니까 쿼리가 예를 들면 다음 달 오늘이 5월이면 6월 달에 어떤 거 분기별 예상하는 거 알려줘.

실제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머신러닝 모델들이 제조업에 많은 경우가 많기는요. 예를 들면 다음 달 모델 수익 모델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한번 찾아볼까요?

뭐 많은데

참석자 2 39:23

보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유지를 하면 돼요.

참석자 4 39:31

그게 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하면 되는데 나 보면

참석자 4 40:10

여기 뭐 이런 모델들도 있네요. 여기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한번 봐

야 되겠는데

참석자 4 40:21

타임 스리 포케스팅 머신러닝에서 그냥 팩을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그냥 설명한 거고 여기 보면 PJM이 에너지 유리 인 MW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디스 데이터 스크립트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데이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쳐도 만들어서 이거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학습시켜 학습을 해 놓은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 따라 들고

참석자 2 40:48

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석자 4 40:56

실제적으로 재고 파악이나 이런 것들 예측하는 모델들 많거든요.

참석자 3 41:05

이게 지금 그러면 해달

참석자 5 41:09

프로젝트가 어떤 회사 내에서만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참석자 4 41:13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예제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참석자 9 41:18

뭐가 필요한지와 알

참석자 4 41:19

삼성이라고 했다. 그럼 삼성 데이터들 모으고 하면 되고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법령적인 거다 하면 데이터를 모범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면 삼성 데이터 그냥 모아가지고 가고 SK는 SK 데이터 모든 면 접 볼 때는 어디 기업들 삼성 데이터들 모아가지고 뭐 이런 거 해 봤다라고 하면 그거 우리 사내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나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큰 회사 아무거나 잡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석자 3 41:51

알시다

참석자 2 41:54

회장님 몰랐다고 우리가 당연히 팀원들도 몰라야 된다고

참석자 5 41:59

저희랑 같은 집

참석자 4 42:00

쓴 적 있어요.

참석자 5 42:02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주제로 다른 기술 분들 한 거 포지터리들을 보면은 일반 사용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쪽으로 가가지고 배포까지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정 회사 쪽에서만 사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참석자 3 42:22

배포 같은 걸 하기가

참석자 4 42:25

근데 배포를 해도 상관없어.

참석자 8 42:27

저희는 내부 문서 아니에요 프로젝트 자체가 목표가

참석자 5 42:30

저희랑 같은 내부 분석 주제로 한 분들도 나중에는 일반 사용자분들 쪽 또 고려를 해가지고 발표

참석자 4 42:40

근데 그분들을 따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의 타겟팅 하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법령적으로 하든지 근데 법령적으로 만들든지 타겟팅을 하든지 해도 일반 사용자는 이걸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참석자 4 43:15

타임 시리즈 말고 그러면 카테고리 컬 데이터를 이렇게 다

참석자 4 43:48

머신러닝 파트도 배웠어요.

참석자 10 43:50

대여기는 좀 짧게 배웠어 짧게 하긴 했는데 여기는

참석자 4 43:53

어떤 거 배웠어요? 혹시 뭐 배웠던 거 써놔던데

참석자 8 43:57

저희 타이타닉 데이

참석자 4 43:59

타이탄이 배웠어요. 그러면 카테고리컬 데이터 배웠네.

생존 안 생존이니까 그럼 카테고리컬 데이터셋으로 하면 되겠다 이거를

참석자 4 44:23

뱅크 마케팅 데이터셋 있네. 이게

참석자 8 44:37

저거 저희 단일 프로젝트 때 하지 않았어요

참석자 4 44:42

이거 한 거예요. 이탈자 예측 그럼 이런 데이터들 비슷한 거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찾으면 되겠네. 케그에 많으니까 약간 찾더라도 뭔가 이제 마케팅 어떤 특정 직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나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6 45:00

나중에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그게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참석자 4 45:07

제조업 제조업도 괜찮을 것 같고

참석자 1 45:16

가입 고객 인터넷 예측 저기 이탈자 예측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이탈자 예측 같은

참석자 4 45:24

네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예. 그래서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뭐 이거 이탈자 7월에 있는 거 예측하는 거 알려줘라는 쿼리가 들어오면 그 툴이 작동해 가지고 거기 결과를 뱉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근데 인풋을 넣을 때는 어떤 형식대로 넣어야 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피쳐들이 들어갈 거니까

참석자 8 45:44

나이 성별이랑

참석자 4 45:45

네 그런 거 들어가야 될 거니까 그걸 리스트 형태로 준다면 그런 거를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45:53

챗봇이 머신러닝에서 학습시키고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 학습돼 있는 모델 학습  
돼 있는 모델을 이걸 이제 챗봇으로 만든

참석자 4 46:00

응 호출하는 톨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시나리오 한번 다시 또 써볼까요?  
그 개요가 어떻게 될까요? 저거 뭐야? 아이디어 개요 개요는 뭐 안 적어도 돼요.

참석자 1 46:23

근데 이거 그냥 이 문서 존재

참석자 4 46:2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이거에 개요를 한번 적어보죠.  
그냥 그냥 이게 어떤 스토리냐 그러니까 사내에 있는 비정형 문서들을 이제 지  
식화를 해서 사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온보딩 프로젝트 퀘스천 아니면 마케팅  
분석 이걸 예시예요.  
예시 마케팅 분석 아니면 코드 아니면 차내 위키 문서 등을

참석자 2 47:02

인동수 설비를 사진과 맞춤으로써

참석자 4 47:05

등을

참석자 2 47:06

참 좋아요.

참석자 4 47:12

원하는 질의에 의한 답을 도출하는 생성형 에이전트 AI

참석자 2 47:19

여기 카메라가 없어서 여기서

참석자 8 47:21

질의에 대한

참석자 5 47:23

각각의 데이터들은 어디서

참석자 4 47:25

일단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거의 다 대부분 인터넷에 그냥 들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좀 만들든지 체즈 피티 같은 거나 예를 들면 삼성의 HR 문서가 없어요.

우리가 삼성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뭐 회사를 안 하고 그냥 법령적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복지 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몇 개 나오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하나 해보려고

참석자 3 48:13

그런 변호사 등록이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참석자 4 48:25

컴플라이언스 문서를 다 하게 뵈어

참석자 3 48:27

만 기능 해류를 만들어

참석자 4 48:30

노션으로 한번 가보자. 스타트업에서 노션도 많이 쓰니까 예를 들면 이런 페이지들이 개발 기술 가이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래 사내 문서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목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챗gpt한테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사내 위키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 있고 이런 페이지들도 다 여기 여기 흩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API 호출해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서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럼 제품 프로덕트라고 하면 또 어떨까요?

제품 프로덕트는 뭐 예를 들면 어떤 CS 아니요 아니요.

제품 프로덕트는 제 생각에는 CSV든 PDF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타겟 회사를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제품을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가전 제품들 그 문서들 있잖아요.

참석자 4 49:30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라고 하면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AWS라고 하면 또 AWS에 대한 프로덕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 PDF로 만든 문서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들고 와서 PDF로 파싱을 시켜가지고 텍스트만 뽑아가지고 이제 정답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석자 1 49:53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PDF 파싱 할 때 혹시 뭐 팁 같은 거 있으실까 있을까요?  
여기서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문서를 이용해서 응답한 패턴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PDF 물론 그 PDF를 있는 방식이 잘못되긴 했는데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를 그대로 스크린 샷에서 인쇄 버튼을 했을 때 PDF를 생성하기 이거 했거든요.

그때는 파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는 상관없고 왜냐면 애당초 PDF를 만들 때는 그냥 잘

참석자 4 50:20

PDF를 만들 필요가 없고 PDF 돼 있는 걸 일단 드리죠.

네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 오픈 소스는 PDF 파서 같은 거 파이 PDF나 PDF 플럼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멀티 컬럼 테이블이 안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컬럼이 많이 없는 걸 좀 피하지 일단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OCR이라고 하거든요.

PDF 파싱이라는 걸 전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고민이에요.

이 멀티 컬럼 같은 복잡한 테이블들의 글 뽑는 거 그리고 이거 뽑는 것도 그냥 글자만 뽑으면 안 돼요.

원래는 제이슨 형태로 뽑아야 돼요. PDF는 왜냐하면 LLM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HTML과 제일 쉽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는 파스하고 JS이랑 HTML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석자 5 51:07

저 데이터들은 다 회사 하나 타겟팅으로 잡고

참석자 4 51:11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타겟팅하든 범용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목업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케글에서 그런 데이터도 들고 와서 그냥 이거 사내의 문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AI 워크 플로우가 중요하고 커리가 작동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모급 데이터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 5 51:34

Inmo로 의의로 생성한 더미 데이터여도 상관없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기능별로 이제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어서 툴 함수 구현해 가지고 각각의 인베딩에 접근 가능합니까?

뭐 뭐

참석자 4 51:53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그거는 요즘 프레임워크들이 다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랭 그래프나 아니면 이제 크루에이나 랭 플로우나 오토젠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구현 가능한 거 MCP는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참석자 5 52:10

네 근데 페스트 MCP를 써보니까 그냥 프람수 쓰는 느낌으로

참석자 4 52:17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툴을 호출하는 하나의 스탠다드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한 정규화된 그런 포맷이고요. 네 MCP를 쓴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툴을 서버에 띄울지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로컬로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면접 때 MCP를 구현해서 써봤다라고 할 거면 그런 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5 52:45

디터브 관리하는 디터브 정보 가져오는 데도 NCP 깃허브 쓰면

참석자 4 52:52

MCP 기타 법 쓴다는 게 그 마켓플레이스 올라와 있는 그거 쓴다는 거죠.  
그걸 써도 되는데

참석자 5 52:59

API로도 일단 확인 할 건데

참석자 4 53:04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P 마켓에 있는 것도 써보고 내가 만든 툴을 로컬에서도 올려보고 그다음에 MCP로 방금 말씀하신 거 sdio나 이런 걸로 말아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혹시 여기 이 사이트 아세요? 스미더리 네 여기에 웬만한 거 마켓에 있는 거 MCP 툴들 다 있거든요.

여기 거 이거 참고하셔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호출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내가 하나도 호출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툴을 또 만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5 53:33

풀이랑 같이 지이랑 같이 볼 수 있었어.

참석자 4 53:37

일단은 제 생각은 ec2 같은 거 하나 받으면 툴을 하나 띄워 띄워도 상관이 없고 로컬에서 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 하나 띄워놓고 그걸 이제 호출하는 걸로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랭 그래프 쓰세요. 랭 그래프 랭 그래프 써서 에이전트 워크 플로우 그걸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그걸 제일 많이 쓰니까 일단 그걸로 하면 되고 크레아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데 좀 용이하거든요.

근데 랭 그래프는 뭐 이런 그냥 단일 툴 같은 거 부르는 데 좀 용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참석자 5 54:15

구글에서 최근에

참석자 4 54:17

a2a요 a2a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 2 에이전트를 발생시키는 이제 스타드 포맷이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보다는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해 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 회사 것도 최근에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가지고 a2a 할 수 있는 커넥트 에이전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디 걸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디 걸 쓰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참석자 3 54:52

말씀하셔서 있는 분을 몇 개를 넣는데

참석자 4 54:57

좀 내려가 보실래요? 그러면

참석자 3 54:59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기능

참석자 4 55:03

아이디어를 그러면 한번 이해하신 걸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적어야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참석자 3 55:11

픽스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팀장님이 원하던 부분 그대로 해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제 생각대로 이게 다 아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마음대로 넣게 되는 부분이 있어

참석자 4 55:30

지금 아이디어 저기는 어떻게 적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에이전트 AI를 만들 거잖아요.

아까 워크 플로우도 대충 그림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한번 여러분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바뀌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참석자 8 55:52

사용자의 질문 커리에 대해서

참석자 5 55:56

사용자 쿼리에 따라서 호출할 툴 같은 거 아니면 분기할 리드

참석자 3 56:00

이튼도 에이전트 고 예를 들어서

참석자 5 56:07

시계열 데이터로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을

참석자 10 56:10

머신러닝 데이터를 만들 때 그 비슷한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면은 그 계열에서 다른 데이터셋을 여러 개 가져와서 컬럼을 통일시켜가지고 그 데이터셋을 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참석자 4 56:25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석자 10 56:27

케글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참석자 4 56:29

패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참석자 8 56:31

그러니까 은행권 데이터 여러 개를 가져와서

참석자 10 56:34

권 데이터 여러 개를 가져와서 컬럼

참석자 4 56:36

제가 가지고 통일을 해가지고 로우 수를 늘리는 게 은행권 데이터들을 여러 개 들고 온다는 게 다 성격이 다를 건데 그걸 다 같이 들고 오는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좋은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컬럼을 늘리는 것보다 로우를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컬럼이 많아지면 로우 수는 그 곱하기로 많아져야 돼요.

예를 들면 한 학급에서 10명이 나오는 거랑 정교에서 10명이 나오는 거랑 군집이 다르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의 성격이 다를 건데 지금 방금 컬럼을 늘린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에 대한 군집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10개만 있어야 될 거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도 다 포함돼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참석자 4 57:22

그러면 원래 100개 천 개가 더 팔릴 수도 있죠. 로우가 많은 걸 찾아가지고 뭐 로우가 많거나 아니면 적절한 것을 찾아서 거기서 몇 개 더 어큐멘테이션을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참석자 5 57:34

대답을 할 수 있게 학습시킨 에이전트라기보다는 딥러닝 모델

참석자 2 57:55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제시하는 것이

참석자 5 58:01

두 번째 에이전트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디터브



참석자 2 58:06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물론 허리도 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URL 터가 해줘야 연동되 해줘야겠지만 들었을 때 이것을 연동된 기 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동으로 필요한지 정하는 게 모르니 아니면

참석자 5 58:33

해당 레포지터리는

참석자 2 58:34

알았다 하면 그거를 뒤에서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좀 정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자 5 58:42

여기에는 딥러닝 안 들어가도 되죠. 아까 아까 거나 억지로 넣은 거고

참석자 4 58:46

근데 1번 시계열 아니라 카테고리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계열이든 카테고리 컬이든 데이터를 다 찾아야 되니까 아직 안 찾았으니까 어떤 특정 회사에서 필요한 마케팅이든 특정 부서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이런 머신러닝 모델에 포함이 돼야 될 데이터를 찾아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찾아야 될 부분도 적어놔야 되니까

참석자 5 59:14

저 시계열 데이터 학습시킨 적 있지 않나요?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주식이었던가?

참석자 8 59:19

네 했어요.

참석자 5 59:25

코드 분석

참석자 3 59:27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일단 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PPT는 정이 오늘 완료가 돼

참석자 5 59:40

좀 더 자세하게 LM이 해당 랩 포지터리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켜놓고 문서화 인  
비딩을 시켜놓고 검색을 하는 식으로

참석자 5 1:00:01

인베딩하고 분석하고 따로따로

참석자 2 1:00:06

이 뒤에 있는 MBC DT들이 나아졌다고 하면서 하면 이렇게 싹 다 없어진 건 아  
니예요.

참석자 5 1:00:18

아까 제가 데모 질문으로 했던 거고 예를 들면은 유저를 유저 정보를 호출하는  
함수 같은 거를 내가 어디서 사용했었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었지 그런 식으  
로 질문을 해도 내가

참석자 5 1:00:49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 같은 경우 위키 데이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레그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레그 호출해서 대답해 주는

참석자 3 1:01:09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참석자 1 1:01:17

제가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참석자 5 1:01:21

저거 정확히는 위키 문서 임베딩한 거 레드로

참석자 2 1:01:28

이게

참석자 3 1:01:35

지금 지금 한 번 가는 건 아니고

참석자 5 1:01:43

근데 이렇게 좀 분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각 저거를 툴로 구현하는 게 낫지  
않나

참석자 4 1:01:51

저 분기가 툴이죠.

참석자 4 1:01:56

저 분기가 호출하는 게 틀리

참석자 5 1:01:58

지금 남은 저는 그 단위 프로젝트 때 했던 게 에이전트 분기하고 분기된 거에서  
또 풀 선택하는 걸 따로따로 했었어 가지고 다른 개념으로

참석자 4 1:02:17

연기하는 거에서 호출하는 걸 따로따로

참석자 5 1:02:22

사용자 쿼리를 받아가지고 어떤 검색 방식을 사용했을지 어떤 검색 어떤 모드  
로 분기할지를 첫 번째로 했었고 노드가 분비되고 나서 또

참석자 3 1:02:38

뭘었지 내일 우리 셋이 생겨야 돼 내 요

참석자 2 1:02:46

나중에 동영상 보면 빨간지

참석자 3 1:02:49

보여드리는 게

참석자 5 1:02:51

냉스미스로 제가 기능을 일단 있는지부터 확인 좀 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능은  
진짜

참석자 3 1:03:01

회원가입 로그인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가 로그인 아니면 푸드 리스트에서 뭘 생성하고 뭔가 이렇게 그것도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참석자 2 1:03:16

그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능 상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던지는 게 레드로밖에 안 했구나 맞아 토의 프로젝트 그거 하면 흐름도

참석자 3 1:03:31

미니 프로젝트 보여드리는 거 맞는데 그럼 저거는 얘기하잖아 마 섞었는데 제가 말했던

참석자 5 1:03:43

제가 그 프로젝트를 두 개를 같이 했었어 가지고

참석자 4 1:03:47

괜찮습니다. 제가 대충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쿼리를 라우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라우팅을 하고 이제 툴을 호출할지 다시 또 라우팅을 할지 아니면 또 에이전트를 호출할지 그거는 이제 자유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툴이 MCP로 됐던 그냥 로컬로 방식이 구현이 됐던 그것도 어느 API로 됐던 그것도 상관없어서 그냥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 5 1:04:17

한 번의 쿼리에 여러 개를 여러 개의 함수를 쓰려고 하면은 그걸

참석자 4 1:04:24

한 번에 여러 개를

참석자 5 1:04:25

그보다는 툴이 낫지 않을까요?

참석자 4 1:04:28

아니죠 한 번에 한다고 하면 펜인 펜 아웃이라는 렌 그래프의 감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음 들어본 그리고 툴을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병렬적으로 되진 않아요.

참석자 5 1:04:47

계속 루프 뭐냐 만족할 때까지 루프

참석자 4 1:04:53

그거는 이제 병렬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허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애가 한 번에 2개의 벡터 DB를 참조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한 번 갔다가 여기 한 번 갔다가 답을 생성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현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건 툴로 이 두 개를 한 번에 호출한 걸 누가 구현을 해봤어요?

그럼 그걸 들고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패인 팬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요 툴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것을 그냥 묶어놓은 게 툴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이것도 같은 똑같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석자 1 1:05:37

혹시 이거 다 보셨나요?

참석자 4 1:05:39

일단 한 3개 정도 시나리오가 낫고 일단 하면서 일단 이것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지금은 마케팅 데이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키 추가는 레퍼트 트리 LM

참석자 3 1:05:56

혼자 와

참석자 5 1:06:00

LLN이 인베딩하는 건 아니고 문서가

참석자 4 1:06:03

저거는 아까 말했듯이 찾으면 도큐멘터가 먼저 나오고 도큐먼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된 글이 있으면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화면에 코드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참석자 9 1:06:15

코드를 가서

참석자 4 1:06:17

예를 들면 화면에 아무거나 누구 뭐 작업하고 있던 거 띄워줄 수 있어요 작업하고 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참석자 2 1:06:33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시를 하는 걸로

참석자 4 1:06:40

그냥 우리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무 거나 아무 애들 거나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 거기 이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슈 이슈 이슈가 없네.

그러면 마지막 미니 프로젝트 플로우 거기도 이슈 없어 거기도 이슈 없어 그냥  
텐스 플로우라고 쳐도 돼요.

텐스 플로우 기지라고 쳐도 돼요.

참석자 2 1:07:02

게이타링은 모르는데 그냥 서비스 자체가 나중에 다르게 보기도 완전히 다르게  
있다.

구별

참석자 4 1:07:11

네 예를 들면 누가 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저희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적어  
놔놔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여기 설명해 놔어요. 뭐 뭐 뭐 해서 증거 번호가 몇 번이에요?  
눌러보세요. 샵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샵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달아놓거든요.

긴 말고 그냥 위키 문서 이거 해당됐고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언제 주간  
회의했고 이런 걸 적어놔요.

그럼 여기 하이퍼링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요구 사항 정해서  
이때 작업했던 거 알려줘 하면 이게 이 컨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이때 작업을 하셨습니다. 나오죠. 그러면 이 코드 분석해 드릴까요?

해서 눌러서 애 누르면 여기 있는 코드들을 분석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참석자 1 1:08:01

제가 이거는 프로젝트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러면은 해당 이슈에 대한 코드 같은 건 연동이 돼 있는 건가요?

참석자 8 1:08:10

도큐멘테이션으로 정리가 싹

참석자 4 1:08:12

저거 저 깃 이슈를 하이퍼링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클릭하면 그 하이퍼링크를 위키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여기 샵 1이든 이렇게 이슈를 적어놔요.

참석자 4 1:08:31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 통신사 큰 통신사 회사 중에 하나는 이 도큐멘테이션 가지고 코드 생성하는 작업을 지금 AI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도큐멘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참석자 4 1:08:53

아무튼 저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면 일단 먼저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지금 1번 2번 3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시는 게 일단 1번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키텍처를 그려오세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려오시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좀 고치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하다 보면 일단 저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면 금방 끝나서 좀 더 디벨롭 할 게 보이고 UI 단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추가를 해 나가는 방식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유지 케이스를 보면 사내에 이제 구매 시스템인데 어떤 특정 쿼리를 입력하면서 사내에 있는 시스템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다 스텝이 끝나야 구매가 되거든요.

근데 쿼리 한 번 날리니까 내 정보들을 다 들고 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 해 주는 그런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봤어요.

참석자 4 1:09:56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순차적인 뭔가 복잡한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셋 아키텍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했던 거는 순차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쪽 회사 거는 이랬어요.

이 캔버스가 나와가지고 채팅을 칠 때마다 이 캔버스가 나와서 내가 요청했던 것이 1번 1번에 요청했던 거 1번에 뜨고 2번에 요청했던 거 2번에 뜨고 3번에 3번에 뜨고 이렇게 1 2 3을 번갈아서 볼 수 있게 돼 있는 지금 우리 채팅창도 1 2 3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 1 2 3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한 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조건을 그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참석자 4 1:10:41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 분석해줘 하면 코딩 해가지고 이제 비주얼 라이징 된 화면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프로젝트 여러 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는 계속 만들어주고 그래서 1 2 3 탭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참석자 1 1:10:59

하나에 대한 응답 세 가지 결과를

참석자 4 1:11:03

아니요. 아니요. 하나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네 다음 요청을 하면 다음 요청에 응답은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여기 2번에 깔끔하게 포매팅 돼 가지고 나

참석자 4 1:11:19

그리고 혹시 UI는 뭘로 할 거예요? 고 맞아 그거 써야 되구나 알겠습니다.  
챗gpt UI 같은 거 오픈 소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해도 되는데 근데 장고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참석자 3 1:11:41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

참석자 4 1:11:42

아니면 저희 장고도 필수 코스트 장고로 보내 지출로 해야 될 거예요.  
변경해 달라고 하든지

참석자 5 1:11:48

다른 기수 분들 한 거 보니까 장고는 그냥 템플릿 띄우는 용도로만 쓰고 테스트 API나 그런 거를 주로 쓰는

참석자 4 1:11:57

잠깐만 그게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가지고

참석자 1 1:12:04

장고라는 거

참석자 5 1:12:06

장고 딥러닝 LLL 이번 3개 요산 들다가 들어가면 계속 들어는 가는 게 들어가면

참석자 10 1:12:14

향 첨가만 해도 돼가지고

참석자 4 1:12:18

보자.

참석자 1 1:12:22

저걸 띄워주는 버튼 하나만 만들어도 되긴

참석자 8 1:12:25

무슨 데이터가 좋을까

참석자 10 1:12:27

그래서 뭐 찾아보면 되지. 근데 그런 데이터를 찾으려면은 그 회사 같은 걸 정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죠.

어떤 회사 어떤 회사 정해가지고 할 회사의 상품 어떤 계열

참석자 5 1:12:44

가상의 회사 정한 다음에 더미로 계속 저희가 GPT로 뽑아도 되고

참석자 8 1:12:51

그래도 돼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참석자 10 1:12:55

그 회사 물판

참석자 5 1:12:59

뭐냐 시계열 데이터나 우리 그런 거는 케글에서 구해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  
지고 가상 회사를 정하자.

뱅크레이터면은 a b c a 은행 이름 이상한 거 하나 지워가지고

참석자 1 1:13:15

벡터 브리크 저

참석자 5 1:13:25

아

참석자 4 1:13:33

오픈 웹 UI라고 있어요. 한번 쳐보실래요?

참석자 5 1:13:41

이거 뭐냐 LLL 로퍼 예에 끼울 때

참석자 3 1:13:51

저 위에 깃 같은 거 하나 있었지

참석자 4 1:13:54

이거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쪽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참석자 3 1:14:03

집에서 애드맵으로 장난칠 때 일반적인 유학생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에서만 30명이 있는데 저희

참석자 4 1:14:19

이걸로 구현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저 날씨 내렸네 저걸로 저런 거 만약에 뭐 이거 제가 쓰면 안 돼요.

혹시나 되면 상관없고 네. 장고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해서 그걸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참석자 5 1:14:41

체일릭 같은 거 진짜 대충 할 거면 붙여도 되긴 하는데

참석자 3 1:14:46

초기 설문 응답자수를 주는 것과 초기 MBT를 뿌린다고 했을 때

참석자 6 1:14:52

아무튼 뭐 그렇게

참석자 5 1:14:54

저희 프론트 자체는 전부 llam이 알아서 해줄 거여가지고

참석자 4 1:14:59

뭐 뭘로 하실 거예요? 그럼 뭐 써요? 지금 지금 아이디 커졌어요 지금 파 저는

윈드 서프 쓰니다.

윈드서퍼요 윈드 서프 어때요?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참석자 5 1:15:12

윈도 서플 프론트 하나는 진짜

참석자 4 1:15:14

프론트 다른 거는요.

참석자 5 1:15:17

다른 거는 크레딧 다는 게 아주 눈에 보일 정도여가지고

참석자 4 1:15:22

그 정도로 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참석자 1 1:15:25

일단 행정관은

참석자 5 1:15:26

커서보다 좀 오류가 높아요. 코드의

참석자 4 1:15:30

얼마예요? 원지석

참석자 5 1:15:31

윈도스쿨 500크레딧이 15달러

참석자 4 1:15:35

500크레 드시면 얼마

참석자 5 1:15:36

일일 크레딧이 제미나이 2.5% 한 번 호출하는 내일 크레딧이

참석자 4 1:15:41

그건 제미나이로 엮여 있구나. 근데 그거 GPT가 이번에 샀잖아 왜 제미나이로 GP

참석자 5 1:15:48

4.1은 0.25 클립이지

참석자 4 1:15:50

더 싸게 그릴 수 있게 돼 있구나. 저도 그거 지금 그걸로 갈아탈까 했는데 커서

참석자 5 1:15:59

커서는 다 쓰고 나서도 그 뭐냐 느리게라도 무료로

참석자 4 1:16:03

윈드 서포터 따로 MCP 붙이는 거 있어요.

참석자 5 1:16:05

네 있어요. 임신



참석자 4 1:16:07

그러면 따로 그냥 이거 갖다 와서 다 붙일 수 있죠.

참석자 5 1:16:10

예. 피드만은 붙여봤다가 애가 바로 프로포트 뭐냐 초과됐다고 아웃 나가지

참석자 4 1:16:19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쓰면 금방 알겠네. 그러면 그러면 노가다를 좀 많이 해봐야겠네.

참석자 5 1:16:27

커닝 페이스에 딥 사이트를 프론트 구성하는 데 지금 썼어가지고

참석자 4 1:16:36

네 많이 많이 사 근데 그 무료 버전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쓰면 크레딧 다 쓰면 그런 거 없나 커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미엄 다 쓰면 무료

참석자 5 1:16:45

아니 이거는 그냥 다 쓰면 탭으로 하는 법만 들고

참석자 4 1:16:51

자동 완성.

참석자 3 1:16:54

우리가 정한 서비스는

참석자 4 1:16:55

일단 이거 1번 2번 3번 고도화랑 아키텍처 그려오는 거랑 고도화 해야지 글을  
이거 한 두 페이지 분량은 만들어 와야 돼요.

아키텍처 포함해서 한 3 페이지 이상은 만들어 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 이 데이터 넣고요.

이거 엠베딩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면 안 돼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고 어떤 엠베딩을 쓸 거고 일단 그렇게 다 시나리오를  
a부터 z까지 낱낱이 적어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야 검토하 뭐 하나라도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가 있으면  
안 돼요.

스텝이 다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다 까놓고 봐야 돼요.

요구 사항 중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내려가 보시죠.

화면은 잘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석자 2 1:17:49

뒤에는 가득했어요. 공부

참석자 4 1:17:51

데이터 셋은 아까 위에서 정할 거니까 그것도 정하면 되는 거고 추가하면 좋을  
점이라

참석자 5 1:18:06

이제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기능 매체가 엄청 많이 저희

참석자 4 1:18:09

근데 다른 기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심사회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거짓말처럼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은 정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웹툰 추천 시스템 만들어 근데 타겟 시스템들도 분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발표를 하면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써야 돼.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포트에는 이게 이쪽에 대한 실제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발표도 그걸 적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발표 점수 크리테어에 들어가 있어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했는지 시장 분석도 해주세요.

그리고 타겟 프로젝트를 유튜브를 보든지 체험판을 하든지 글을 읽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우리 것보다 우리 게 더 나은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참석자 4 1:19:19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3개를 만들지만 나중에 좀 더 그 기능을 붙일지 그런 걸 찾아나갈 거거든요.

참석자 4 1:19:35

한 10분만 쉴까요?

참석자 4 1:19:43

혹시 여기 여기는 다 흡연을 하시는 건가요? 저 저기 흡연 올랐는데.